

STORY ABOUT  
GIMHAE  
CULTURE CITY



2021

도시문화실험실

결과자료집

도시  
문화

실험실  
실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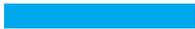
# STORY ABOUT GIMHAE CULTURE CITY



2021

도시문화실험실

결과자료집





# CONTENTS

8 도시문화실험실 사업안내

## 동네문화실험실

12 내외동\_ 재할용컵이 피었습니다

16 대동\_ 마을 행복 돌봄

18 대동\_ 문화를 잇다

20 삼방\_ 삼방팔방 동네미디어

24 원도심\_ 원도심 프로젝트

28 장유\_ 민주시민의 첫걸음 '청소년자치위원회'

30 장유\_ 함께 하는 사춘기 프로젝트

‘나는17살, 엄마도 엄마되지 17년’

32 진영\_ 진영문화네트워크 창단식

36 한림\_ 한림면 깨끗하(河)데이(day)

## 도시의제실험실

40 고령\_ 치매 OUT!!!

44 청년\_ 청년자기이해학교 붐붐붐

48 환경\_ 김쓰봉 프로젝트

52 에필로그

about 도시문화실험실

## 김해의 미래를 김해시민이 만든다!

<도시문화실험실>은 김해 전 지역의 권역별 시민조직에 의한 주체적인 문화활동으로써, 교육과 참여 및 다양한 아이디어의 실현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민문화 생태계를 조성하여 김해의 미래를 시민이 직접 만들어갑니다.

### 사업목적

다양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책임연구원 및 시민연구원이 협업하여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나감으로써 **시민 주체적인 도시문화 환경**을 만들어 간다.

### 운영권역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권역별 7개, 의제별 3개 총 **10개의 실험실 운영**

- 동네문화실험실 : 내외동 | 대동 | 삼방동 | 원도심 | 장유 | 진영 | 한림
- 도시의제실험실 : 고령 | 청년 | 환경

### 운영주체 및 주요역할

- 책임연구원 : 도시활동, 문화기획 경험이 있는 시민으로 다양한 실험주제 발굴
- 시민연구원 : 책임연구원과 함께 실험주제 발굴 및 다양한 도시문화활동의 주체

### 추진과정



### 기대효과

- 권역별 시민생활에 밀착된 다양한 주제에 접근하고 해결해보는 문화 주체의 경험 증대로 **시민의 문화력 강화**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활동가 발굴 및 역량 강화**



일상을 관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 <도시문화실험실>

지역 곳곳이 당면한 문제를 시민이 직접 정의하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재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재활용컵이 피었습니다!

책임연구원 | 이난이 박남진

시민연구원 | 김순덕 김현미 김애리 이안나 김미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두 명의 책임 연구원과 다섯 명의 시민연구원으로 구성된 내외동 실험실은 내외동의 쓰레기 문제에 집중하면서, 거북공원 일대에서 무단투기된 일회용컵에 대한 실험과 2022년 6월 시행되는 일회용컵보증금제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 플라스틱 대한민국, 일회용에서 재활용으로 다시 피어나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배출량은 세계 2위다. 그러나 정작 재활용하는 페플라스틱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아이러니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한다. 김해시 내외동 곳곳에서도 넘쳐나고 나뒹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탄소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었다. 그 플라스틱 컵을 씻어서 분리 배출하거나 가게에 도로 갖다 준다면, 플라스틱은 우수한 재활용의 원료가 될 것이다. 내외동실험실의 '재활용컵이 피었습니다'는 플라스틱 컵 재활용을 위한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 내외동에서 재활용 촉진 프로젝트를 실험하다

내외동 쓰레기 문제를 의제로 삼고, 실험을 구상하면서 난간 위, 골목귀통이, 공원 정자 위, 주차장 구석 등에 나뒹구는 일회용 컵에 주목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할지 많은 협의를 거쳤다. 계속되는 회의와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또다른 환경문제가 될 수 있는 일회용 현수막과 패널 사용을 지양하고, 박스 포장재를



이용하여 직접 쓰고 그린 패널을 제작하여 내외동 거북공원 일대에서 환경캠페인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험을 진행하였다. 특히, 시민들이 보증금을 기부할 때 시민연구원이 직접 만든 친환경 굿즈를 제공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

**2022년 6월 시행되는 일회용컵보증금제, 시민 38% 알고 있다** 일회용컵보증금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음료값에 300원의 환경보증금을 부담하고 다 마신 일회용 컵을 씻어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컵보증금제를 38% 시민이 알고 있었으며, 89.6%의 시민이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컵을 씻어서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실험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번거롭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공공화장실에서 컵을 씻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주변의 청소근로자의 불편함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해서는 텀블러를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텀블러를 가지

고 다니는 행위에 대한 소정의 인센티브에 대한 시민의 니즈가 높다는 것이 나타났다. 시민과 함께한 이번 실험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에 많은 시민이 호응을 보이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문화

## “ 실험이 끝나고 난 후

‘우리 때는 고무다라이도 다 꼬메 썼는데..’ 환경 캠페인 중에 페트병 뚜껑으로 만든 친환경 치약짜개를 구경하시던 한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다. 요즘 사람들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과 무단폐기로 오염되는 환경에 대해 일침을 놓으신 것이다. ‘저 플라스틱 컵은 다 어른들이 먹고 버린 거잖아요’ 이 말은 자기 쓰레기는 자기 가방에 꼭꼭 넣어온다는 한 아이가 깨끗하게 씻은 플라스틱 컵을 내밀며 한 말이다. 아이에게 해줄 말이 없어 곤혹스러웠던 순간이었고 우리의 뿌리가 되는 과거 세대와 열매가 될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를 더 깊게 생각해야 할 때임을 다시한번 깨달았다.

거북공원의 카페거리에는 다양한 젊은 연인이 많은 곳이다. 그들의 밝고 즐거운 모습이 떠난 자리에 **유독 많은 일회용컵이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일회용 컵보조금제에 대한 인식도 이십대가 다른 세대에 비교하여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웠다. 오히려 실험 중에 시민연구원들은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세제나 플라스틱 용기도 ‘함부로 못 쓰겠다’는 말을 달고 지냈으며 꼭 채워진 플라스틱이 부담스러워 편의점이나 마트도 불편해지는 **환경 죄책감**에 빠지기도 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몰라서 못하는 환경운동**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가령 환경보호를 위해 물티슈를 안 쓰는 대신에 걸레와 물과 세제를 쓰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일반시민은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회용사용을 줄이는 것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친환경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도 남은 실험이었다.

## “ 모두의 소감

**[책임연구원 이난이]** 아이들이나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의 참여도가 좋았습니다. 평소에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의미심장하였습니다. **[책임연구원 박남진]** 환경보호는 세계시민의 의무로 무조건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죽은 미래를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시민연구원 김순덕]** 플라스틱으로 몸살 앓고 있는 내외동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친환경 살이를 실천합니다. **[시민연구원 김현미]** 처음엔 막막했는데,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을 한번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시민연구원 김애리]** 함께 한 연구원님 덕분에 즐겁고 행복했고, 일상에서 친환경 제품을 더 잘 사용하겠습니다. **[시민연구원 이안나]** 이번 실험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의 심각성과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고, 모두의 열정에 감사합니다. **[시민연구원 김미연]**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 대동, 마을행복 '돌봄'

책임연구원 | 양현정 노사은  
시민연구원 | 김대영 김명희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한 명의 책임 연구원과 세 명의 시민연구원으로 구성된 대동 마을행복 '돌봄'실험실은 대동면에서 아동돌봄 문제를 의제로 삼고 지역주민과 협의 과정을 거쳐 대동면 시례 마을 마을쉼터에서 마을행복 '돌봄'을 실험하였다.



**마을쉼터에, 마을행복이 가득 찼다!** 물 좋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대동이지만, 언제나 아이들의 돌봄이 고민이었다. 방과 후 아이들이 마음 놓고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돌봄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공간, 인력, 콘텐츠라는 돌봄의 세 가지 요소에 집중하고 고민하였다. 또한, 실험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돌봄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계획으로 고민을 거듭한 결과 기존에 있는 마을쉼터를 이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돌봄을 기획하고 실험하기로 했다. 우선 마을 어르신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실험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유익한 돌봄콘텐츠를 마련하였고, 2021년 1월 10일~ 1월 14일 대동면 시례마을쉼터에서 15명의 아이들과 함께 마을행복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모습, 앞에서 치워주고 뒤에서 보살피며 흐뭇해하신 어르신들, 말 그대로 마을쉼터에 마을 행복이 가득 찬 모습이었다.

**"다음 주에 여기 또 와도 돼요?"** 상시 거주 교사 한 명과 보조 교사 두 명이 10시~1시까지 다양한 활동키트로 돌봄을 진행



하였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한 레진아트 및 인근 양떼 목장 체험 등, 아이들과 함께 활기차게 일주일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날, 기대에 찬 두 눈을 반짝이며 한 아이가 '다음 주에 여기 또 와도 돼요?'라며 아쉬움을 남겼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참 많이 아쉬웠고 처음 보는 어르신에게도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착 안기며 편하게 소통하는 아이들의 순수하고 열린 마음에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으며 우리의 조그만 관심과 고민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도토리마을’로 꾸준한 돌봄활동을...** 실험이 끝난 후, 참가자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80~90%로 매우 높았다. 지속 가능한 돌봄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연구원들과 일부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돌봄을 위한 작은 공동체 ‘도토리마을’을 만들었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2022년 경남 공동체활동지원 주민 공모사업에 지원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센터’와 연계하는 등 꾸준한 돌봄을 위해 한 발짝을 내딛었다.

## “ 모두의 소감

**[책임연구원 양현정]** 아이들은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책임연구원 노사은]** 엄마들이 주도적으로 대동에 맞는 돌봄서비스의 모형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연구원 김대영]**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대동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연구원 김명희]** 이번 실험을 시작으로 우리 아이들이나 지역의 변화를 위한 여러 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대동, 문화를 잇다!

책임연구원 | 양현정 노사은  
시민연구원 | 이수정 김순덕

2021년 10월, 두 명의 책임연구원과 두 명의 시민연구원으로 구성된 대동 '문화를 잇다' 실험실은 마을심터를 이용하여 대동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대간 소통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인 '대동, 문화를 잇다'를 실험하였다.



**문화결핍을 채워줄 문화영양제가 필요하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더욱 문화가 침체된 농촌에 활기를 되찾기 위하여, 마을 주민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농촌 마을의 세대간 이해와 소통의 부족, 문화를 공유할 공간과 콘텐츠의 미비가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의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마을심터(구 마을회관)가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젊은세대가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 마을심터에 대한 인식전환도 함께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동면 시례마을, 하사마을의 마을심터에서 40여명의 마을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농촌마을의 문화결핍을 채울 문화영양제로써 역할을 수행했다.

**시례마을, 하사마을 마을심터에서 함께한 문화활동** 전문강사 및 보조강사와 함께하는, 다육이를 이용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한지공예로 전등 만들기, 남녀노소 건강증진 활력강화 댄스,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마을영화관,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아주 만족하신 스마트폰 사용법교육 등을 5일간 시례마을,





하사마을 마을쉼터에서 진행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자 어르신들은 떼쓰는 아이처럼 또 오라면서 시민연구원들을 붙드셨다. 어르신들께서 그만큼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떨어져 어찌면 삭막함과 무기력함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닐까,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 말고, 언니라고 불러 도!”** 첫 만남 이후 조금 편해지신 한 어르신께서 어머니라는 호칭이 싫다고 하셨다. 그러자 다른 분들도 나이는 들었어도 마음만은 젊다며 다같이 환하게 웃으셨다. 문화는 마음의 시계를 거꾸로 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문화 활동의 기회가 찾아가길 바랐다. 아쉬운 점은 더 많은 마을 분을 모시지 못한 것과 젊은 세대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앞으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농촌 공동체를 위한 문화 혜택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 공감하여,

시례마을은 2022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우물사업에, 하사마을은 2022년 경남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에 지원하였다. 시례마을과 하사마을 어르신께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

## “ 모두의 소감

**[책임연구원 양현정]**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일상에 어르신들께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웃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책임연구원 노사은]** 마을쉼터의 다양한 활용으로 공동체의 화합과 어르신의 복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연구원 이수정]** 대동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겠습니다. **[시민연구원 김순덕]** 함께 한다는 것과 문화의 소중함을 새삼 알게 되어 참 행복했습니다.

# 삼방팔방 동네미디어

책임연구원 | 김은숙

시민연구원 | 방소연 차영례 김비채 심형수  
노명희 여채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 명의 책임연구원과 여섯 명의 시민연구원으로 구성된 삼방실험실은 침체되어있는 삼방동의 정서적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삼방동의 능동적이고 밝은 면을 알리는 삼방팔방 동네미디어를 실험하였다.



**어둠을 걱정했으나 밝음이 우리 곁에 있었다.** '삼방동은 어둡다, 삼방동은 못산다' 안과 밖의 이런 말에 그런 줄 알고 있오라고? 삼방동 시민연구원들은 생각을 뒤집어버렸다. 그러자 온갖 좋은 점, 밝은 면이 쏟아졌다. 삼방동 이름의 기원이 된 관천재와 가락국 판타지 전설의 배경인 초선대 그리고 어두운 골목의 밝음이 되어준 골목길 방법대원까지, 이제부터 풀려갈 삼방동의 매력발산 이야기, 미디어로 만나볼까?

**동김해 일대의 상징성을 띤 동네, 삼방동** 삼방동에서 20년 이상 살고있는 주민이 대부분인 시민연구원들은 처음에 삼방동 하면 떠오르는 '어둡다'라는 의제를 풀기 위해 유독 골목이 많은 삼방동 길을 다같이 걸으며 회의를 했다. 그 후, 디자인씽킹을 거치면서 삼방동의 물리적 어둠보다는 주민들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적 어둠이 더 문제임을 파악하고 이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과 토론을 이어갔다. 삼방동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스스로 깨기 위해 삼방동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커고 삼방팔방 동네미디어라는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결국, 알아야 보이는 삼방동의 밝음과 매력을 삼방동 주민들이 알게 되고 자신의 동네에 자부심을 가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번 실험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삼방동뿐만 아니라 침체된 분위기의 동감해 전체를 위한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에 삼방동이 떴다!** 보이는 이동식 라디오와 유튜브로 삼방동의 매력을 송출하였다. 보이는 이동식 라디오로 삼방동 알리기 캠페인과 챗린지를 이어가고, 유튜브에 총 20분 분량의 영상을 3회씩 업로드하여 삼방동 멋집, 주민리포트, 떴다 삼방장, 안전캠페인, 삼방동 퀴즈쇼, 찜질방 토크, 세대공감 토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삼방동을 담아냈다. 삼방동 주민이 직접 기획, 섭외, 극본, 진행, 인터뷰, 촬영까지 진행하며 삼방동에서의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삼방팔방 동네미디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삼시기는, 반드시 돌아온다!** 삼시기는 '삼방동시민기획단'의 줄임말이다.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삼시기는 삼시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밥심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며 삼방동을 위해 일하는 시민들이다. 삼방팔방 동네미디어 실험의 주역으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중형무진 신나고 재밌게 파헤치고 기록하고 알렸다. 이번 실험은 끝났지만, 삼시기는 꼭 돌아와 행복한 삼방동, 안전한 삼방동을 위해 열심히 밥 먹고 더 열심히 될 것이다.



삼방팔방  
동네미디어

-인생 영화관 만들기-

동네  
삼방미디어.

ROLL	SCENE	CUT	TAKE

DIRECTOR Kim Eun Sook.

DATE 2022.01.08

## “ 실험이 끝나고 난 후

**삼방동 이름의 유래를 담은, 관천재**는 임진왜란 당시 김해를 지키다 왜적에게 모두 목숨을 잃은 이대형공과 그의 아들, 며느리를 추모하는 재실로써, 이들을 기리기 위해 '석 삼, 꽃다울 방' 삼방동이라는 마을이름이 생겼다. 후손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김해시 차원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락국 판타지 전설을 담은, 초선대**는 가락국 당시 바다에 둘러싸인 곳으로 김수로 왕의 아들 거등왕이 신선들과 바둑을 두고 국사를 나누었다는 전설이 유명하다. 그리고 경남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마애불, 바둑바위 등 뛰어난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고 관리되지 않아 지금부터라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어둠 속에 밝음을 담은, 삼방 안전지킴이**인 자치 경찰과의 연계프로그램으로 지역 안전캠페인을 펼치면서 골목골목마다 삼방동 남녀 방범대원의 자원봉사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방범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비친 삼방동의 길은 밝디밝았고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아주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삼방멋집과 리포트는 **삼방팔방 우리동네미디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많은 NG는 기본이고, 진행자가 표준말을 쓰는 바람에 잘리고, 거리와 차량에서 촬영한 다섯 시간 분량의 인터뷰가 음향 실패로 날아가고, 멋집으로 소개된 사업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문을 닫는 일 등, 미디어 아마추어로서 비애도 많았지만 참가한 분들의 열정과 재밌게 시청해주신 동네 주민들 그리고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로 **삼방동의 연예인**이라며 반응해주는 분들 덕분에 하루하루 신나게 실험을 진행하였다.

## “ 모두의 소감

**[책임연구원 김은숙]** 참여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삼방의 매력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어서 기쁘고, 열정적인 삼시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삼방 주민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쭉욱~~~삼시기가 간다! **[시민연구원 방소연]** 20년 넘게 삼방동에 살면서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실험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함께 고민하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민연구원 차영례]** 실험 이후, 내가 사는 삼방동뿐만 아니라 김해시의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시민연구원 김비체]** 평소 스쳐 지나가기만 한 것들을 돌아보며 공간과 사람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시민연구원 심형수]** 아마추어 느낌 물씬 나지만, 지루할 틈 없이 좋은 사람과 재미나게 활동하여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연구원 노명희]** 독배기처럼 정겹고 때론 멋집에 잘 어울리는 아메리카노 같은 사람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시민연구원 여채원]** 삼시 세끼 잘 챙겨 먹는 삼식이의 밥만큼 중요한, 삼방동의 삼시기가 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한 수였습니다.

# 원도심 프로젝트!

책임연구원 | 최 레 이효진

시민연구원 | 전나미 김예찬 박신정

2021년 10월, 두 명의 책임연구원과 세 명의 시민 연구원으로 구성된 원도심실험실은 한옥체험관을 중심으로 원도심을 알리고 편안한 심 이미지를 구축하여 역사가 살아있는 김해 원도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 고즈넉한 역사의 품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심을 누리다!

김수로왕릉을 비롯한 패총전시관, 대성동고분박물관, 봉황동 공원과 봉리단길, 동상동 전통시장 등 회현동, 동상동 일대는 김해의 근원이자 자랑스러운 원도심이다. 2021년 12월 24~25일, 원도심실험실은 한옥체험관 각 동에 한 가족씩 초대하여 '인락한 심'과 함께 다채로운 체험과 감동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김해 원도심의 유서 깊은 역사성과 아름다움을 편안한 심과 함께 담아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원도심이라 쓰고 원도심이라 읽기** 김해 원도심은 유구한 역사 유적과 현대적 감각의 세련됨이 공존하는 김해시의 자랑스러운 관광지이자 발전 가능지역임에도, 신도시에 비교하여 관심과 지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회의와 토론을 이어나갔다. 참가한 시민연구원들은 파고들면 들수록 고즈넉한 아름다움으로 생활에 지친 시민의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원도심의 가치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김해시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김해 원도심의 가치를 알리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기획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원도심이 원도심'이라는 컨셉을 도출하였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역사를 걷고 현재를 보고, 추억을 남기다** 문화해설사의 안내로 원도심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고, 자유투어로 김해 역사의 시초를 경험하며 한걸음 한걸음 원도심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수로왕릉 돌담길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후원에서는 하트고인돌 찾기와 같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여 미션스탬프를 모아 굿즈 선물 받기 등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활동을 하였다.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원도심의 가치를 알아가는 기회였다. 또한, 동상동 일대의 외국인 거리와 MZ 세대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봉리단길 등 원도심의 다채로운 풍경에서 오래됨과 새로움의 조화를 체험하였다.

**달고나, 한옥의 빛, 그리고 크리스마스** '나 어릴 때 국자 수십 개는 태워먹었지'라며 달고나 요령을 가르쳐주는 어르신과

지지 않으려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같은 동심이 느껴졌고, 한옥 체험관에서 여러가지 옛놀이를 함께 하며 모두의 일체감이 행복으로 번지는 경험을 하였다. 24일 밤,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름다운 빛으로 꾸민 특별한 한옥에서 산타, 북극곰, 눈사람과 함께 멋진 크리스마스의 밤을 보냈다.





## “ 실험이 끝나고 난 후

코로나와 공간부족 등으로 더 많은 가족을 초대하지 못한 점과 짧은 일정으로 끝난 점이 아쉬웠고 영하12도의 갑작스런 한파에 야외활동을 안내하면서 참가자 분들께 송구스런 마음이 들었다. 시민연구원들은 이 실험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확장되길 바란다. 또한, **원도심이 김해의 핵심관광지**로 타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이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참가자들의 전반응**으로는, ‘한옥체험관 앞을 지나가기만 했지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온 가족과 함께 오신 주민분, 한옥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새로운 체험에 들뜬 얼굴로 행복해하신 외국인 모녀분, 아이들과 옛놀이에 빠져 동심으로 돌아가신 어르신, 이런 좋은 곳이 우리 옆에 있는 줄 몰랐다고 감탄하며 원도심의 구석구석을 눈에 담으신 시민분들, 엄마 아빠와 옛놀이의 재미에 빠져 추운 날씨에도 땀 뻘뻘 흘리던 아이들.... 혹한의 날씨에 실험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실험을 끝내고 나서 김해시민으로서 원도심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새삼 **자부심을 느꼈고**, 김해 원도심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원도심의 풍부한 볼거리와 재미있는 즐길거리는 **원도심 2탄, 3탄**으로 이어져 김해시민을 넘어 전국민에게 특별하고 편안함 씬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 모두의 소감

**[책임연구원 최례]** 원도심의 문제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오히려 원도심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책임연구원 이효진]** 김해시민으로서 원도심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 원도심을 알리게 되어 무척 행복했습니다.

**[시민연구원 전나미]** 김해시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김해 원도심을 찾고 원도심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연구원 김예찬]** 시민연구원으로 참가하여 무척 뿌듯했고 많은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김해시민들이 여러 문화공간에서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연구원 박신정]** 김해시민으로서 다른 시민에게 어떤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보람 있었고, 원도심이 더 많이 알려져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민주시민의 첫걸음 ‘청소년 자치위원회’

책임연구원 | 박정은

시민연구원 | 신승리 송은경 정유경 이소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 명의 책임연구원과 네 명의 시민연구원으로 구성된 장유 청소년자치위원회 실험실은 장유지역 청소년의 민주적 문제해결력 향상과 주체적인 자아발견을 위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주시민의 첫걸음인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실험하였다.



“어른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장유 청소년자치위원회 12명의 자치위원들이 회의시간에 문 앞에 붙여놓은 당돌한 문구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기획, 회의, 의결, 결과보고서까지 오롯이 민주적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4차례 토론회와 문화교실 운영 등을 자치적으로 주도하였다. 학교와 가정에서 시키는 것, 정해진 것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다양한 문화활동, 공동체를 위한 문제해결 역량을 키워주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장유실험실 & 장유 청소년자치위원회 타임스케치** 장유 주민 이자 40대 학부모로 구성된 시민연구원들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갈등이나 무력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디자인씽킹 과정을 거쳐, 청소년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제를 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모집하고 자치위원 위촉과 같은 제반 사항을 준비하였다. 이후 청소년자치위원회의 모든 회의와 의사결정은 청소년 스스로 해결해나가도록 이끌었고, 회의 진행과 보고서 작성은 물론 5개의 문화교실 강좌, 누구소 상담소, 청소년 문제 캠페인 등의 모든 의제를 청소년이 자치적으로





정하고 진행해나갔다.

2021. 09. 장유권역 시민연구원 모집 / 2021. 09. 장유권역 지역문제 디자인싱킹 의제발굴 / 2021. 12. 장유 청소년 자치위원 모집 / 2022. 01. 청소년자치위원 12명 위촉 / 2022. 02. 5개 강좌 문화교실 운영(30명 참여) / 2022. 03~ '누구소'운영 및 청소년 문제인식 on/off 캠페인

**'누구소'와 '청소년문제인식 on&off 캠페인'** 누구소(누구나 고민상담소)는 청소년의 걱정과 고민을 공감하고 댓글을 달아 주는 프로그램이며, 청소년문제인식 on&off 캠페인은 사회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일탈문화에 대한 분석과 예방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스스로 모든 의제를 정하고 풀어가고 있다.

**꽃씨 하나라도 함께 심는 민주주의의 장** '오길 참 잘했다', '함께 하는 활동이 좋았다'는 청소년들의 반응이 우리를 반성하게 했다. 사회관계와 연대를 몸으로 익혀야 할 청소년들이 코로나와 어른의 방심으로 고립되었던 건 아닐까 생각했다.

작은 활동이라도 부대끼며 관계 맺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의 장을 어른들이 열어주어야 한다.

## “ 모두의 소감

**[책임연구원 박정은]** 이번 실험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좋은 기억으로, 각자의 성장과 미래에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연구원 신송리]** 아이들의 활기찬 참여, 힘찬 추진력, 다양한 생각들을 느끼며 심장이 두근거렸 습니다. **[시민연구원 송은경]**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추진해나가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시민연구원 정유경]** 장유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표현하며 행복하게 성장하 기를 기대해봅니다. **[시민연구원 이소원]**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 함께하는 사춘기 프로젝트

## ‘나는17살, 엄마도 엄마된지17년’



책임연구원 | 전미영

시민연구원 | 송은경 정유경 이소윤

2021년 10월, 한 명의 책임연구원과 세 명의 시민 연구원으로 구성된 장유 사춘기프로젝트실험실은 장유지역 사춘기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부모와의 여행으로 올바른 감정수용을 돕는 사춘기 프로젝트 ‘나는17살, 엄마도 엄마된지17년’을 실험하였다.



**갈등도 추억이 되는 여행** 가족은 서로 너무나 사랑하기에 때로는 갈등이 생길 때도 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감정을 수용하고 해소하는 과정이 조금은 서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지나치다고 여기기도 한다. 서툼과 지나침이 뒤섞인 관계를 회복하는 사춘기 아이와 부모와의 여행, 그리고 소통의 이야기... 부모와 함께, 아이와 함께 갈등도 추억이 되는 여행을 실험했다.

**심리상담, 솔루션, 그리고 일박이일** 시민연구원들은 청소년에게 학교와 같은 외부환경도 중요 하지만 가정이라는 근원적인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부모와 일대일 여행을 실험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가 나왔으며 청소년이 직접 여행기획서를 작성하고 대면 면접을 진행한 결과, 총 여덟 가족을 선발하게 되었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여덟 팀은 장유 실험실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을 받고 부여받은 솔루션을 여행 중에 수행하며 일박이일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아이들이 직접 계획한 감동의 여행스토리** 엄마의 어린 시절 추억이 머문 곳에서 소녀로 돌아간 엄마를 만나고, 자연 속에서 오롯이 둘만의 교감을 나누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서로의 속도를 맞춰주고, 다른 점이 아닌 닮은 점을 찾아가고, 모닥불 앞에서 뜨겁게 마음을 전하고, 처음으로 듬직한 장남이 되어 보고... 아이들이 부모를 배려해서 직접 짠 여행계획에 엄마 아빠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고, 아이들은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부모의 간섭과 잔소리 속에 따뜻한 진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모든 관계에 회복이 필요한 시대** 부모자식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할머니와 손자, 장모와 사위, 그리고 사회 속 수많은 관계에 우리 모두는 얽혀있다. 이번 실험을 통해, 마음을 열심히 써서 생기는 갈등이 몸을 함께 쓰는 여행을 통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회복이 필요한 모든 관계를 위해 이 실험이 진화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 “ 모두의 소감

**[책임연구원 전미영]** 일방통행이 아닌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는 동반자의 관계로 갈등을 해소하려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시민연구원 송은경]** 사춘기 아이들이 가족과의 다양한 마찰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시민연구원 정유경]** 부모님과 갈등을 잘 해결하고 사이가 좋아지기 바라며 이번 실험에 참가한 모든 청소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민연구원 이소윤]** 사춘기도 소중한 성장기의 하나로 받아들이면 갈등도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 진영 문화네트워크

책임연구원 | 고지현 강정아  
시민연구원 | 김선옥 백미능 서성현

2021년 10월에서 2022년 2월까지 두 명의 책임연구원과 세 명의 시민연구원으로 구성된 진영실험실은 진영 내 흩어져있는 다양한 문화조직과 콘텐츠를 모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플랫폼을 만드는 실험을 하였다.



**문화의 힘으로 진영을 흔들어 깨우다!** 근대 우리나라 가수들의 핫플레이스였던 진영역! 사통팔달 교통중심지, 시골벽적 상업중심지, 마음만 먹으면 예술이 되었던 곳, 근대역사 속 문화의 전성기를 누렸던 진영은 가지만 꽃아도 꽃이 핀다는 예술적 토양이 비옥한 곳이다. 진영에서 토박이와 이주민, 어르신과 젊은이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가 어울리고 섞여서 진영의 문화를 다시 깨울 수 있도록 진영실험실 연구원들은 고민과 토론을 이어갔다.

**'진영 속속 파먹기'와 문화연대에 대하여** 진영은 인근 창원시와 김해시의 개발수요로 신도시가 조성되고 새로운 공장 지대가 생성되는 등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주민의 문화 욕구가 상승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진영 내의 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타지로 나가 문화생활을 즐겨야 하고, 원주민과 이주민의 정서적 거리감, 고령층과 청년 간의 세대 차이, 과거의 진영에 비해 지역의 분위기가 침체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환기하는 결정적 한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명 '진영 쓱쓱 파먹기'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진영 곳곳에 퍼져있는 문화의 힘을 끌어모아 문화연대를 통한 화합을 이끌어갈 문화네트워크 창단을 실험하게 되었다.

**2022년 1월 19일 진영 문화네트워크 창단식 성공리에 개최**  
진영의 랜드마크인 한빛도서관에서 시화전, 낭송회, 음악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진영문화네트워크 창단식을 개최하였다. 창단식을 열기 위해 진영 내에 많은 문화예술인과 단체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을 연결하여 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문화 소통의 장을 만드는 성과를 남겼으며, 진영만의 문화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할 기반을 다졌다. 행사 진행 중 깜짝 손님으로 등장하신 허성곤 시장님 외 많은 성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jyculture 유튜브와 네이버카페, 진영문화를 알리고 기록하다**  
진영문화네트워크는 보다 많은 시민과 소통하고자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카페를 개설하였다. 콘텐츠와 문화 소식

등 한달에 5개의 소식만 전해도 일 년에 60개씩 진영의 문화 기록이 쌓이게 된다. 또한, 진영 곳곳을 발로 뛰어 숨겨진 문화인과 알토란 같은 문화 콘텐츠를 진영 주민과 연결하는 문화 전달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고  
국화꽃 저바린  
겨울 뜰속에  
창 열면  
하얗게 무서리 내리고  
나래 푸른 기러가는  
복讖을 날아 갔다.

아아. 이제는 한적한 빈 들에서 보라.

고향길 눈속에선 꽃등불이 타겠네.  
고향길 눈속에선 꽃등불이 타겠네.

달 가고 해 가면  
별을 멀어도  
산골짜기  
깊은 골 초가 마을에

봄이 오면 가지마다  
꽃잔치 흥겨우리.

아아. 이제는 손 모아 눈을 감어라.

고향집 싸리울엔 함박눈이 쌓이네.  
고향집 싸리울엔 함박눈이 쌓이네.



## “ 실험이 끝나고 난 후

진영문화네트워크는 햇빛, 바람, 특히나 아름다운 진영의 노을처럼, 늘 곁에 있는 진영의 문화를 **진영 주민이 바로 즐길 수 있는 문화플랫폼**이다. 진영의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진영에서 활동하는 문화인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의 활발한 문화활동을 지향한다.

진영문화네트워크는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자체 로고를 만들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지속가능한 문화네트워크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 진영 주민이 곁에 있지만 알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를 가깝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동네 진영을 선도해나갈 것이다.

주민협의체, 문화단체, 마을공동체, 시민단체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봉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네트워크를 넓혀가길 기대한다. 빠른 추진력과 참신한 아이디어의 젊은 문화 인재와 진영 곳곳에서 문화토양을 단단히 지키고 있던 기존 문화인들과의 결합이 발화되어 새싹이 돋고 서서히 꽃 피우는 **문화동네, 진영**을 꿈꾸며 '나 진영에 살아요'라는 말에서 문화자부심이 느껴질 때까지 진영문화네트워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진영 시인이 쓴 시에 진영의 작곡가가 곡을 붙이고 진영의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며 진영 주민이 낭독극을 펼쳤던 **문화어울림, 진영문화네트워크창단식**을 시작으로 문화동네, 진영이 다시 깨어났다.

## “ 모두의 소감

**[책임연구원 고지현]** 시민연구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적용하고, 서류 간소화로 실험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네트워크가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성장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연구원 강정아]** 흩어져있는 문화를 모으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동네 진영의 문화네트워크가 다른 지역의 롤모델로 자리 잡고 오랫동안 지속,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연구원 김선옥]** 진영읍 승격 80년 만에 진영문화를 발굴하고 하나로 모으는 실험이 뜻깊었습니다. 함께한 동료 연구원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도 힘차게 달려가도록 서로 격려합니다. **[시민연구원 백미남]** 문화는 삶의 기본입니다. 아이들의 솜씨자랑에서 순수예술인의 혼이 담긴 작품활동까지, 진영을 사랑하는 주민으로서 또 예술인으로서 모두가 삶의 기본으로 편안하게 문화를 즐기길 바랍니다. **[시민연구원 서성현]** 청년농부로서, 진영 문화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이 참으로 가치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문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 한림면 깨끗하데이

**책임연구원** | 허모영 조수진

**시민연구원** | 김미혜 심무경 이귀순 이주란  
조아라 조하선

2021년 10월부터 두 명의 책임연구원과 여섯 명의 시민연구원으로 구성된 한림실험실은 국내 최대 하천형 습지인 화포천 습지를 깨끗이 보전하고 한림면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캠페인과 환경보전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실험하였다.



##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그냥 덮어버릴 수 없는 쓰레기문제**

한림 시민연구원들은 한림면 47개 마을을 세 차례씩 돌면서 141개의 모니터링 리포트와 1300여개의 마을 쓰레기 사진을 데이터로 정리하여 '한눈에 보이는 쓰레기 지도'와 '한림면 환경 모니터링결과자료집'을 만들고 마을리더를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해결책은 왜 안 가져오냐고 말했다. 그래서 되물었다.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쓰레기 문제를 그냥 덮어두나요?' 한림실험실 연구원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환경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모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다.

## **한림면 47개 마을 쓰레기, 싹다 뒤졌다**

연구원 8명이 카메라와 모니터링 리포트를 들고 한림면 47개 마을을 돌며 한림면 쓰레기 지도를 완성했다. 어느새 쓰레기 스토커가 된 한림면 시민연구원들은 한림면을 깨끗이 보전하고 화포천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보람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했다.



**버린 사람이 아니라, 주운 사람이라 행복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캠페인과 화포천 쓰레기 줍기에 나선 시민연구원들. 1월이라 추웠고, 사람들의 무관심에 서운했고, 화포천 주변의 메마른 나뭇가지에 찢려 팔다리가 따가웠다. 그러나, 여름이 아니라 다행이었고 응원해주는 시민과 쓰레기를 주워오는 아이들이 있어 보람찼고 버린 사람이 아니라 주운 사람이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행복했다. 봄 오면, 노랑 어리عن꽃 활짝 핀 화포천과 정다운 한림 마을에서 다 같이 쓰레기 줍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 “ 실험이 끝나고 난 후

한림면 깨끗하데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소통**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 쓰레기 지도를 만들고 환경캠페인 활동 등으로 '우리 마을 쓰레기 문제는 내가 박사다라는 자부심이 생겼지만, 정작 마을에 쓰레기가 쌓이는 원인에 대해 주민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어 안타까웠다. 어쩌면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이야기에 쓰레기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까지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다음에 기회가 주어 진다면 주민들과의 소통을 의제에 포함해 활동해보고 싶다.

또한, **클린마을 콘테스트**를 계획했으나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미비로 실행 하지 못해 아쉬웠다. 다음에 실험하게 된다면 **한림면 청소데이**라는 기획을 통해 도시문화실험실 시민연구원뿐만 아니라 한림면 전주민이 참가하고 체험하는 환경이벤트를 추진하여 '환경의식의 확대'라는 주제로 실험해보고 싶다.

이번 실험을 통해 **자연보호는 자식보호**라는 의미를 새삼 느꼈다. 환경캠페인을 하다 보면 데면데면한 어른들과는 달리 아이들은 '쓰레기를 줍자', '자연을 보호 하자'라는 구호도 금방 따라 하고 발 앞에 떨어진 작은 쓰레기도 얼른 찾아 줍는 등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였다. 마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깨끗하게 쓰고 물려 주세요'라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듯하여 우리 것이 아닌 자연을 깨끗하게 쓰고 곱게 물려주자는 다짐을 새삼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대의 하천형 습지로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명의 땅, 화포천 습지를 보호하는 것이 한림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해시 전체의 숙제 임을 다시한번 깨달았다.

## “ 모두의 소감

**[책임연구원 허모영]** 3차례에 걸쳐 마을 쓰레기 현황을 조사하고 지도와 책으로 만드는 일은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한림면 전체 환경 상황 분석을 위한 기초작업이었습니다. **[책임연구원 조수진]** 오랜시간을 함께 한 시민연구원 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속적으로 한림실험실의 정신이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연구원 김미혜]** 화포천으로 가는 걸음 한걸음 / 화포 천으로 가는 시선 한곳 / 어느곳 하나 / 즐겁지 않은 곳이 없다-자작시 '화포천' 중. **[시민연구원 심무경]**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면 쓰레기도 재활용이라는 쓰임새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시민연구원 이귀순]** 마을이장으로, 쓰레기 문제에 직접 대면하는 담당자로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연구원 이주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원인조사는 못했지만 현상파악이라는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시민연구원 조아라]** 내집 앞, 우리 동네, 나아가 김해시 전체의 환경을 위해 주민 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연구원 조하선]** 앞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주기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고령, 치매OUT!

책임연구원 | 손지혜 이인희

시민연구원 | 구효정 이은희 장지현 서숙정 | 권영호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두 명의 책임 연구원과 다섯 명의 시민연구원으로 구성된 도시문화 실험실 고령팀은 김해의 치매 환자와 가족 또는 기관에 실효성 있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치매 OUT 김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실험하였다.



**6년 뒤, 당신도 치매일 수 있다** 치매로 진단받기 5~6년 전 치매에 약한 뇌의 신호가 나타난다고 한다. 고령실험실의 '치매 OUT!' 프로젝트는 치매의 초기징후를 발견하고 조기치료와 중증치매 예방을 위한 검증된 프로그램의 홍보를 실험의제로 삼았다. 치매는 나와 가족의 영혼을 갉아먹는다고 한다. 65세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치매는 조기진단으로 빨리 치료하고 또 미리 예방하면 극복 가능한 질병이므로, 그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김해시의 치매 발병율을 줄이고 발병시 올바른 대처방법의 숙지로 치매 환자와 가족 등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치매는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치매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참여한 시민연구원 한 분도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데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령 문제의 당연한 의제로 치매를 결정했다. 지금도 15분마다 한 명씩 치매 진단을 받고 있을 정도로 증가하는 치매 인구로 인해 국가적인 관리비용 증가와 실종 노인의 급증, 가정



불화등 풀기 힘든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치매 조기 진단과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막상 닥치고 나서야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치매 조기진단과 예방프로그램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토론하였다. 그 결과로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치매OUT캠페인'을 실험하였다.

**김해시민과 함께한 치매OUT 캠페인** 2022년 1월 15일 김해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에서 치매OUT 캠페인이 열렸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한 프로그램에 남녀노소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치매 조기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 좌뇌와 우뇌의 균형발달을 위한 손 유희 체조, 두뇌활동을 위한 율동,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는 집 만들기, 정서안정을 도와주는 천연 아로마로 나만의 향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과 체험을 진행하였고 풍선아트를 이용한 매직공연으로 참가자들의 흥미를 돋우었다.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과 즐거운 하루를 꽉 채우고 가족사진 촬영과 치매예방홍보 굿즈 증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진행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온 손자 손녀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어르신과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가 함께 활동하며 웃고 즐기는 모습이 무척이나 뿌듯하고 감동적이었다.





## “ 실험이 끝나고 난 후

할머니를 모시고 온 어린 손자, 다정하게 손잡고 오신 어르신 부부, 호기심으로 찾은 젊은 부부 등 다양한 가족이 참여하였다. 이렇듯 치매는 나 하나가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빠른 고령화 사회였던 일본은 '치매초기집중지원팀'을 운영하여 각종 지원으로 치매 환자의 자립을 돕고, 네덜란드는 치매 마을로 유명한 호헤베이크 마을에서 치매 환자들이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준다. 이번 실험을 통해 치매 환자들의 자립적인 생활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을 알게 된 시민연구원들은 김해시도 치매환자들이 모여 살며 서로 돕고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김해 치매마을**의 건립을 생각해보았다. 또한, 아파트마다 있는 어린이 놀이터 한켠이라도 어르신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한 소근육 활동 기구와 담소를 나눌 의자 몇 개로 **어르신놀이터**를 만들면 좋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아기상어'처럼 온 국민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치매예방 국민노래, **일명 치매예방송**을 만들어 널리 알리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도 **15분에 1명씩 치매 진단**을 받고 있으며 25가구 중 한 가구당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한다. 치매 환자 한 명에 가족은 적어도 2~3명 이상이다.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알아야 하는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에 사회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증 치매가 되기 전, 조기진단을 통해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 가족과 충분한 유대감을 나누면서 이상행동의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소중한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김해시,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홍보와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다.

## “ 모두의 소감

**[책임연구원 손지혜]** 청년문제나 환경문제에 비하여 고령문제는 조금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어 아쉽지만, 이번 활동이 끝이 아닌 시작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연구원 이인희]** 치매 환자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돌보아주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조기진단과 예방에 대한 홍보가 너무나 시급합니다. **[시민연구원 구효정]**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고령문제를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확장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시민연구원 이은희]** 김해시에서 우리 세금으로 이런 문화실험을 한다는 게 놀라웠고, 참여하여 뜻깊은 활동을 하여 좋았습니다. **[시민연구원 장지현]** 치매는 나와는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아쉬웠어요. **[시민연구원 서숙정]** 나이 많으신 분들만 오실 줄 알았는데 손자가 할머니를 모시고 오고, 아이들과 젊은 부부도 참가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시민연구원 권영호]** 이런 활동에 처음 참가한 사람으로서, 김해시에서 사회이슈를 시민들의 아이 디어로 풀어나가는 것이 새롭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청년자기 이해학교 봄봄봄

책임연구원 | 박보연 조지훈  
시민연구원 | 감명주 김금빈 김채현 김태영  
박채현 유주희

2021년 10월, 두 명의 책임연구원과 여섯 명의 시민 연구원으로 구성된 청년실험실은 2022년 2월 8일에서 2월 22일까지 김해청년다움에서 청년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고자 청년의 자기이해·자기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험하였다.



## 실패해도 괜찮아, 나다움을 찾을 때까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의한 나였다면 이제는 나다움을 찾아야 한다. '청년자기이해학교 봄봄봄'은 청년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 청년 스스로 자기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패에 대한 책임과 그 너머의 성장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청년다움을 펼쳐보는 시간을 가졌다.

## 문제발굴, 공감, 그리고 워크숍

청년실험실은 해커톤 방식의 토의를 통해 '청년들이 진로, 진학 및 취업의 고민 앞에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탐색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스스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선택한 진로로 인하여 야기된 부적응과 심리적 불안의 해소'를 청년실험실의 의제로 삼고 워크숍을 진행했다.

## 나를 돌아봄, 나를 찾아봄, 나를 펼쳐봄

'청년자기이해학교 봄봄봄'은 3주간 청년 참가자들과 함께 총 세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심리검사와 각자



의 그림을 공유하며 마음을 나누고 치유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하는 '나를 돌아봄', 주제별 모둠 대화와나마시(나를 마주하는 시간)로 자신에 대한 소책자를 만들며 나를 탐색하는 '나를 찾아봄', 전문 컨설팅 강의를 통해 다양한 자기표현에 대한 교육과 상담 그리고 실전연습으로 자신감을 찾아 자기를 표현하는 '나를 펼쳐봄'으로 이루어졌다.

**중도이탈 없이 졸업,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면허증**

모든 참가자가 중도이탈 없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졸업장과 '실패해도 괜찮아' 면허증을 발급받는 성과가 있었다. 입학할 때 보다 훨씬 밝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진 참가자들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연구원들의 모습이 그동안의 힘든 순간들도 벅찬 감동으로 이어져, '청년자기이해학교 봄봄봄' 시즌 2를 마음에 품게 되었다.





## “ 실험이 끝나고 난 후, 성장하는 청년들의 이야기

오전 10시에서 밤 10시까지, 이것은 회의인가 고문인가, 텐텐워크숍은 청년실험실 연구원들의 혼을 갈아넣어 만들어진 아이디어와 공감 그리고 소통의 시간이었다. 2021년 7월부터 준비하여 2022년 2월, 실험이 끝날 때까지 오리엔테이션, 아이디어해커톤, 워크숍 등의 강행군이 계속되었다는 거, 안비밀이다.

초반에 어수선한 분위기에 한두 번의 약한 **탈주각**은 있었지만 기나긴 여정에서 결국 **무임승차 없는 팀들의 완결판**을 이루어낸 청년실험실이 자랑스럽다.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8명의 시민연구원들은 7개월간의 청년실험실 활동을 통해 고민과 소통 그리고 열정의 시간이 함께 어우러져, 최고의 팀플레이로 모두가 만족하는 실험결과를 이끌었다고 자부한다. 때론 나는 **시민연구원인가, 참가자인가**를 고민할 정도로 같은 청년으로서 참가자에게 공감과 이입하는 연구원도 있었고, 참가자와 대화하며 자신이 더 위로받고 성장한 연구원, 참가자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한 연구원도 있었다. 시민연구원과 참가자가 청년이라는 공감대가 어우러지고, 알과 치유 그리고 동반성장을 이루어낸 멋진 시간이었다.

**실험 도중에 취업한 참가자**에 다같이 기뻐하고, 유독 말이 없어 '혹시 다음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했던 참가자가 굉장히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주었을 때 무척 뿌듯했다. 이렇듯, 3주간의 마법같은 시간이 지나고 아쉬움과 함께 '청년자기이해학교 봄봄봄'이 끝났다. 코로나와 여러 여건으로 인해 맘껏 펼치지 못하고 짧은 일정으로 마무리되어 안타까웠지만, 청년실험실은 '청년자기이해학교 봄봄봄'의 시즌제를 마음에 품고 '김해청년으로 일주일 살기'와 같은 과감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 “ 모두의 소감

**[책임연구원 박보연]** 코로나와 여러 여건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잘 실현되지 않은 부분과 짧은 시간이 아쉽지만, 중도탈락 없이 잘 마무리되었고 같이 고생한 시민연구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민연구원 감명주]** 참가자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며 보람 있었고 '실패해도 괜찮아' 면허증을 발급했던 것이 가장 자랑스러웠어요. **[시민연구원 김금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청년이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았기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시민연구원 김채현]** 동료 연구원들과의 팀플이 최고였고, 자유롭게 의견과 생각을 나누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시민연구원 김태영]** 내가 연구해서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활동한다고 생각하니 '우와~' 하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우와~'가 몇 번씩 터지는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시민연구원 박채현]** 남자 참가자 두 분 중 한 분이 취업이 되어, 혼자 남으신 남자참가분이 좀 걱정되었는데 무사히 졸업까지 하여서 좋았습니다. **[시민연구원 유주희]** 참가자 한 분이 낮을 많이 가려서 걱정했는데, 마지막에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감정을 교류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 도시의제, 환경- 김쓰봉 프로젝트!

책임연구원 | 이은영 장현영  
시민연구원 | 배은영 배정조 서성현 이진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두 명의 책임 연구원과 네 명의 시민연구원으로 구성된 환경 실험실은 김해시 진영읍, 화포천, 분성산 일대에서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의식 변화와 실천을 위한 '김쓰봉프로젝트'를 실험하였다.



## 김쓰봉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않는 김해시민이다.

김쓰봉 프로젝트 시민연구원들은 김해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경계하는 내용을 어린이들과 직접 그리고 표현한 김쓰봉 쓰레기봉투 600개를 제작하여 진영읍, 화포천, 분성산 일대의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그게 뭔데요?”, “못 쓰는 거 아입니까?”라고 말하던 시민들도 아이들의 깜찍한 그림으로 표현된 김쓰봉을 손에 들고 야외활동 중에 생긴 쓰레기를 꼭게 넣어 집으로 돌아갔다. ‘김해시민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다닌다’라는 의미를 축약한 김쓰봉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않는 김해시민이다.

## 도시문화실험의 취지에 따른 김쓰봉 탄생이야기!

기존에 있던 환경 캠페인과는 차별화되고 돈을 쓴다고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문화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도시문화실험실의 취지에 맞도록 실험의제를 정하고 방법을 모색하는데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쳤다. 네 번의 워크숍을 통해 김해시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의제로 정하



였고 김해시민은 무단투기를 하지 않고 자기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가져간다는 김쓰봉프로젝트가 탄생하였다. 김쓰봉프로젝트의 핵심은 줍기이나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김해 시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다.

**김쓰봉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시민들의 출입이 많은 공원 입구에서 김쓰봉의 취지를 설명하고 김쓰봉을 나누어주며 공원을 나갈 때 쓰레기를 잘 수거한 시민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야외캠페인을 네 차례 진행하였다. 그리고 김쓰봉을 통해 환경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세 가지 설치물을 제작하여 두달 동안 홍보하였다. 또한, 9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총 6회의 환경교육을 통해 아이와 부모의 환경 인식 변화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세 가지 활동 중 시민과 직접 교감, 소통하였던 야외캠페인에 시민의 호응과 칭찬이 가장 많았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의식변화에 높은 기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설치물 인근에는 쓰레기 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서는 어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환경 의식을 가진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았다.





김서봉  
김해시민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대변합니다

김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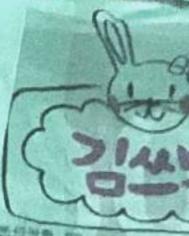
김서봉  
김해시민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대변합니다!!

김서봉

김해시민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대변합니다  
있을 때 쓰레기봉투를 버려주세요!

무단투기 NO  
깨끗한 환경 YES

김해시민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대변합니다  
무단투기 싫어요! 올바르게 버리기!



김서봉

김서봉

김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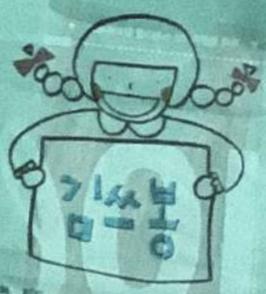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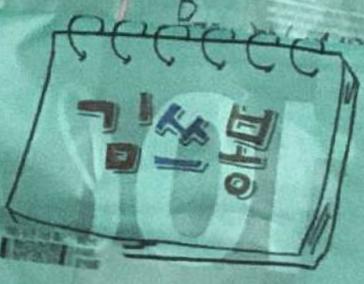
김서봉

김해시민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대변합니다

김해시민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대변합니다

김해시민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대변합니다!!

김해시민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대변합니다!!  
내 쓰레기는  
내가 직접 버린다!!



김해시민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대변합니다

김해시민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대변합니다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가 가지고간다!!

김해시민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대변합니다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가 되게 가져간다!!

무단투기, 불법투기, 양분은 분리해서  
김서봉

무단투기 없는 김해시민화도시

## “ 실험이 끝나고 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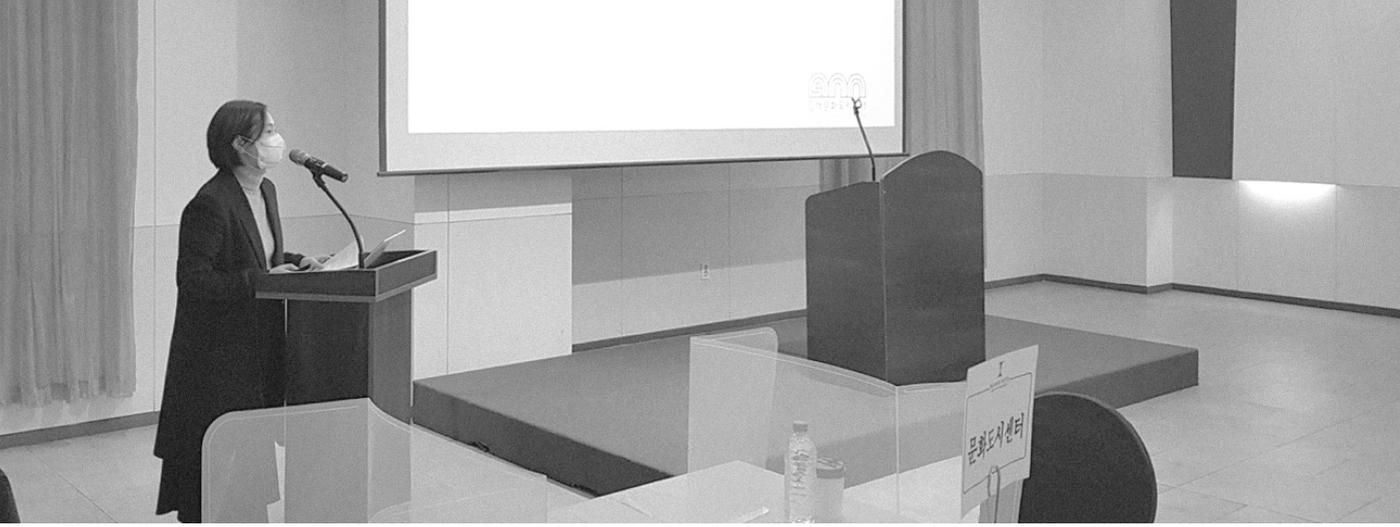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수많은 쓰레기를 치우고 처리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인력과 돈을 쓰고 있다. 애초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않는다면 환경보호와 더불어 엄청난 재원을 아낄 수 있다는 발상으로 김쓰봉프로젝트는, 쓰레기 무단투기 자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실험에 도전하게 되었다. 처음에 도시문화실험으로써, **문화적인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환경이라는 의제를 만나고, 김쓰봉이라는 캠페인을 실행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나누고 끝없이 토론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실행을 하며 낯선 변수도 만나고 변화를 수용하는 등, 되돌아보니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문화활동이었다. 문화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때로는 함께 때로는 따로, 한결같이 흘러가고 있는 물결임을 이번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번 실험을 진행하면서 시민연구원들은 서서히 **환경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환경자신감은 어느 자리에서건 환경에 대해 자신 있게 소신을 말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힘을 말한다. 혼자만의 친환경을 넘어 많은 사람에게 환경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공유하는 활동이 뜻깊었고 앞으로도 환경자신감을 펼치며 더 많은 사람과의 연대와 활동을 기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쓰봉을 함께 만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특별어린이연구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 “ 모두의 소감

**[책임연구원 이은영]** 어릴 적 꿈이 경찰관이었어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을 잡는. 커서 보니 그런 경찰을 뽑지 않더라구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거기 쓰레기 버리면 어떡해요?”라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책임연구원 장현영]** 환경과 문화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가치를 이 실험에 오롯이 담아 낼 수 있을까? 결국, 행동하는 사람과 반응하는 사람의 결합으로 그 답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입니다. **[시민연구원 배은영]** 환경운동가를 뼈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함께한 동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당신, 당신은 자랑스러운 환경운동가입니다. **[시민연구원 배정조]**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것 하나라도 눈여겨보는 습관들이 모여 시민의식을 높이고, 감해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합니다. **[시민연구원 서성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을. 우리 어른은 어떻게 된 걸까요? **[시민연구원 이진순]** 환경문제에 대해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쓰는 생필품으로 환경이 오염되지 않을까 죄책감도 함께 생깁니다. **[스페셜+]** 김쓰봉을 함께 만들고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해준 어린이연구원들께 특별히 감사를 전합니다.





## “ 모두의 소감

[김해문화도시센터 파트장 서지은] 2021문화도시조성사업 도시문화실험실은 19명의 책임연구원과 55명의 시민연구원이 권역별 7개의 실험실과 의제별 3개의 실험실 총 10개의 실험실에서 활동하며 12개의 의미있는 의제를 발굴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전체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계속해서 시민 거버넌스 구조 확장이라는 목표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2021년 7월부터 해가 바뀔 2022년 2월까지 지역의 문제 발굴부터 사업예산 결정, 실험진행, 그리고 성과 공유회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연구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김해문화도시센터 PM 이한준] 2021년 김해문화도시 도시문화실험실이 일반적인 시민기획사업 또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속의 과정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해가는 경험이 되고, 그 과정에서 시민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PM으로 참여했습니다.

긴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책임연구원, 시민연구원들께 감동했고, 함께 만들어가는 김해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 2021 도시문화실험실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2년 3월  
발행인 김해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발행처 김해문화도시센터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060 김해문화의전당 M층  
기획 서지은  
진행 서지은 신유진 이아름  
편집 김해문화도시센터 시민문화파트  
홈페이지 문화도시김해.kr  
문의 055-339-2042  
제작 미디어피플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 김해시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 본 자료집의 모든 권리는 김해문화도시센터에 있으며 본 센터의 서면 동의 없이는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